

시 초

나는 심장에 게양하고 산다

신 흥 국

나는 부르고싶어라
어머니조국의 생일날
그대 자랑스런 아들로 공민으로
정을 다해 사랑을 다해
람홍색국기의 노래를!

그 기복따라
이 강산은 더욱 키를 솟구는듯
조국의 국력과 위상에
가슴 한껏 부풀어
영광에 휩싸이는 이 몸

숨쉬는 그 기복!
계절은 바뀌어도
지워지지 않노라
가슴속에 펴리이며
내 심장 두드리는 뜨거운 당부

오각별 빛나는 국기와
행복으로 맺은 인연
얼마나 크나큰 축복이더냐

화복하고 존엄높이 살도록
인민을 지켜 헤쳐가신
위대한 령장의 헌신의 발걸음
소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의 국기를 보면
진리의 해불인듯
조선! 그 위대한 이름을 외우며
더욱 경탄을 터뜨리기를
희망봉을 보듯 즐거워하기를

국기여! 그대는
이 몸을 키운 어머니
땀배인 옷자락인가
예국의 넋을 부여준
고마운 은인의 손길이던가

오, 자랑찬 우리의 국기여!
그대 뿌리는 눈부신 빛발
이 땅에 변혁을 낳고
광활한 미래로 줄달음치는
우리의 앞길 찬란히 비쳐주나니

땅을 떠나 이삭이 여물수 없듯
조국을 떠나 살수 없는 몸
품돌여 가꾸라 바치라
키워준 그 품에
탐구의 이삭을 창조의 열매를

눈보라 응-응- 울어도
비바람 창문을 흔들어도
가슴에 그 기복 안으면
너는 웃음이 지지 않는 꽃!
눈속에도 청청한 예슬나무!

오, 그 소리에 실려 진함없는
그대 펴리임소리는
우리의 령도자 김정은동지
사랑의 힘으로 대를 이어
이 강산 가득히 채워주시는
주체의 사회주의의 음향!

이루지 못할것 무엇이랴
이 세상 제일 강하신
사랑의 태양
위대한 김정은동지 모시고
성실하고 강직한 인민이 사는데야
정도로 화복한 일심의 대가정
주체의 사회주의가 있는데야

인민공화국선포의 그날부터
우릴 안아 키워준 그 품
불러도 불러도 진함이 없으니
오, 사랑하는 국기의 노래
그끝은 정녕 어디이던가

국기가 게양될 때
기발따라 솟구쳐오르는
격정의 분출이여
내가 서있는 곳은
자주세계의 한복판!
나는 인민의 리상
공산주의를 두어깨로 떠받든
그렇다, 국기아래 역센
시대의 지인이여라!

말없어도 진실한 땅처럼
수수천년 한모습인 바로 그 땅처럼
곳곳이 변함없이
한생을 묻어 길이 받들라
우리 국기 누리에 찬란히 빛나도록!

보답의 마음속에
언제나 입고 살거라
만복을 주는 삼색 고운 옷
가슴에서 국기가 지워지면
사랑의 별 빛나는
아름다운 하늘 없어진단다!

그 음향 오선지에 담으면
인민의 웃음소리 넘치는
사랑과 행복의 선물이 되고
심장에 담으면
강대한 내 조국의 자랑
일심단결의 대합창곡 되나니

국기가 없는 하늘아래
망국민으로 살아본 인민이기에
국기를 내리려 달려드는
침략자들과 맞서
세기를 이어 승리해 온 인민이
기에

국기가 게양될 때

국기가 게양될 때
내가 선 곳은
어느 광장이 아니다
어느 일터가 아니다
누리를 한눈에 굽어보는
이 행성의 한복판!

대지에 날리는 기복

창공에 휘날려서만
우러러보던가
내 마음 경건히
우러러 바라보는 기발이 있다

국기의 축복

꿈구나!
네살점이 귀여운 손녀
계손으로 차려입은
람홍색국기 새겨진
눈처럼 하얀 옷

심장에 게양하고 산다

노래여라, 국기여!
그대 정겨운 펴리임소리는
행복과 기쁨을 실어오고
미래를 약속해주는

끝없이 메아리쳐가라
행복의 노래
승리의 함성
힘의 송가
절세의 위인을 모신
조선의 크나큰 자랑이여
오, 우리는 그 자랑 영광의
국기
심장에 게양하고 산다!

국기가 게양될 때
나는 한가정의 가장이 아니다
수수한 평민이 아니다
조국의 명예를 안고나선
견결한 투사!
이 제도를 만든 역척의 성돌!

여름날 제법별 삼지강농민들이
가을날 안락의 오곡농장원들이
드넓은 대지에
풍년날알로 새긴 국기

바라보노라니 깊어지는 생각
아직은 모르리
국기에 담겨진 그 깊은 의미를
안다면 빨간별 오각별 고운 옷 입고
해빛밝은 탁아소로 들어서는
그 기쁨 아닐가

승리여라, 국기여!
그대 즐거운 펴리임소리는
만세의 함성으로 울려오고
영광과 환희를 안겨주는

나의 소원

국기! 그대를 지켜
수백만 목숨을 땅에 묻으며
전쟁도 겪었다
그대를 빛내이려
고난과 시련의 언덕 넘어
피와 땀도 바친다

오 국기여! 그대는
흰구름 휘감고 솟은
리상의 거리
우주만리로 날오는
우리의 위성
승리의 광장에서 빛발치는
우리의 존엄이며 긍지!

얼마나 국기를 사랑했으면
땀이고 땀심인
그 탐스러운 밀포기로
그 굽은같은 벼이삭으로
드넓은 대지에 국기를 다 새겼으랴

소중하구나 그 기쁨
매일 맛있게 먹는
신선한 우유며 과일들
재미있는 글공부 노래공부
안겨주고 지켜주는 품

힘이여라, 국기여!
그대 담찬 펴리임소리는
이 세상 폭제를 눌러버리고
평화의 무지개 하늘가에 펼쳐
가는

하나 어찌 그것뿐이랴
나에겐 소원이 있어라
우리의 국기 언제나
국제경기장과 경연장들마다에서
남먼저 높이 오르기를

국기가 게양될 때

가슴으로 쓸어보노라
땅에 새겨져
땅에 뿌리를 내리

너무 좋아 온몸이
기쁨되고 웃음뎀것 아니냐
좋은 세상 좋은 세월

절세 위인을 모시여 무궁번영하는 나라

공화국창건 75돐을 승리의
대정지축전으로 뜻깊게 경축한지
도 여러날이 흘렀지만 그날의 격
정과 환희는 식을줄 모르는 용암
마냥 공화국인민들의 가슴가슴을
뜨겁게 달구고있다.

공화국창건 75돐 경축행사에서
서 위대한 조국의 강용한 기상과
무궁창창한 미래를 가슴씩차게
체감한 공화국인민들이다.

지금도 가슴뿌듯이 안겨준다.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의 두
전선에서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
을 다해나갈 일념을 안고 경축
광장을 누벼간 열병종대들, 사
회주의전야를 달리던 트랙도르들
이 원추적멸의 위력한 포차가 되
고 창조와 건설의 대진력을 누
비던 자동차들이 열적의 무기들
을 떠신고 세찬 동음을 울리던
그 광경이.

그 멋스럽고 호기찬 광경앞에
서 뚫어오르는 걱정을 터뜨리던
사람들의 목소리도 쟁쟁하다.

《저 열병대오속에 내 남편과
아들이 서있습니다. 만약 원수들
이 이 땅에 전쟁의 불을 지르다
면 나도 손에 총을 잡고 판가리
싸움에 떨쳐나서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우리 군

대결에 세상에서 제일 강한 인민
이 서있는데 그 무한대한 힘을
과연 어느 누가 당해낼수 있겠습
니까. 보면 볼수록 힘이 솟고 승
리의 신심이 백배해집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공화국창건 75돐경축 민방위무
력열병식 참가자들과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뜻깊은
자리에서 주체조선특유의 강용
성과 단결력이 굽이친 장엄한
열병식은 진정한 인민공화국
의 창건과 영광스러운 발전사
를 긍지높이 떠올린 일대 장거
로, 전민이 국가방위의 성세를
이루고 자주적존엄과 국권, 평
화를 굳건히 수호하며 강국건
설대업을 끝없이 완강히 실
현해나가는 사회주의조선의 불
매의 기상의 힘있는 과시로 된
다고 말씀하시었다.

공화국창건 75돐경축 민방위
무력열병식이 조선의 절대적힘이
노도친 격류였다면 김일성광장을
불의 바다로 뒤덮은 청년전위들
의 해불야회는 공화국의 창창한
미래를 확신케 하는 또 하나의
대정지축전이었다.
람홍색국기아래 자라난 이 땅
의 젊은이들이 영광스러운 어머

니조국의 생일에 펼친 불의 바
다, 그 이름도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애국청년들 앞
으로!》.

청년들의 손마타에 쥐어진 해
불, 그것은 청춘들의 가슴마다
에 타오르는 충성의 불, 예국의
불이었고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국가부흥의 새시대, 활기찬 혁
명의 새 전기를 힘차게 열어나
가려는 이 나라 청춘들의 신념
의 분출이었다.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백
승을 펼쳐온 존엄높은 공화국의
투쟁력사와 전통, 강용한 기상
이 청년들이 추켜든 해불의 대
화로 굽이치는 그 모습은 강대
한 이 나라, 공화국특유의 불가
항력을 또 한번 절감하게 하는
장관이었다.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가 광장을 진감하는 속에 새겨진
무력열병식이 조선의 절대적힘이
노도친 격류였다면 김일성광장을
불의 바다로 뒤덮은 청년전위들
의 해불야회는 공화국의 창창한
미래를 확신케 하는 또 하나의
대정지축전이었다.

람홍색국기아래 자라난 이 땅
의 젊은이들이 영광스러운 어머
니조국의 생일에 펼친 불의 바
다, 그 이름도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애국청년들 앞
으로!》.

찾는 미더운 청년들의 대부분
가지고있는 공화국의 창창한 래
일에 대한 확신으로 가슴뿌듯
해서였다.

민방위무력열병식과 청년들의
해불야회가 공화국의 강대한
힘과 무궁창창한 미래에 대한
일대시위였다면 대성황리에 진
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5돐경축 대공연은 공화
국의 찬란한 력사와 휘황한 미
래, 공화국위업의 필승불패성
을 웅변적으로 펼쳐보인 장중
하고도 아름다운 음악사시
였다.

공화국의 전 력사가 그대로
서사시적화곡으로 펼쳐진 공연
에서 련이어 울려 퍼진 명곡들
을 들으며 사람들은 공화국의
무궁번영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갈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장에서 하신
연설에서 령강들의 각축전마당
으로 무참히 짓밟혀던 어제날의 약
소국이 오늘도 당당한 정치군사강
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

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일어난 이 경이적사변은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안아오신 력사의 필연이라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수령이 위대하여 인민도 위
대하고 나라도 위대하다는 진
리를 공화국은 탄생의 고고성
과 더불어 자기 력사의 첫 갈
피에 새겼고 련련히 이어져
온 75성상의 빛나는 장정우
에 절대불변의 금문자로 아로
새겨왔다.

돌이켜보면 탄생부터 결코 범
상치 않았던 이 나라였다.
국호와 국기, 국장과 국가에
이르기까지 절세위인의 거룩하신
손길, 빛나는 예지에 떠받들리워
세계앞에 새롭게, 눈부시게 떠
오른 공화국이었다.

그렇게 탄생하여 불세출의
위인들의 탁월한 령도따라 세
계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불요
불굴의 기상으로 운명적인 국
난들과 엄혹한 도전들을 타개
하며 자주, 자립, 자위의 강
국, 일심단결의 강국으로 행
성의 중심에 우뚝 솟아오른

공화국이다.
정녕 공화국의 75성상은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절세위인들을 따르는 길이 곧 승
리와 영광의 길, 행복과 번영의
길이라는 역척불변의 신념을 새
겨주었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경축행
사장에서 이렇게 격정을 터치
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비로소 망국과 수난의 명예를
벗어던지고 세기적기적들을 련이
어 창조하는 기적의 창조자, 불
사신의 영웅, 전설의 나라로 솟
아오른 이 나라, 이 민족이 아
닙니까.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민족사상 가장 빛나는 강국의 인
민으로 우리를 세계의 단상우에
높이 내세워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절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신것은 조선민족의
행운충의 대행운이고 경사충의
대경사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똑같은
천하제일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그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고 제국주의메
무리들이 제아무리 발악을 해도

배심은 든든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심과 락관
으로 충만된 우리의 가슴가슴은
지금 경애하는 그이를 따라 끝까
지 한길을 갈 불같은 결의로 세
차례 높이고있습니다.》

공화국창건 75돐을 승리의
대정지축전으로 뜻깊게 경
축한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더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조국청사에 아
로새길 불같은 결의로 충만되어
있다.

시련과 난관은 의연히 전진의
앞길을 중중첩첩으로 가로막아나
서고있다.

하지만 공화국인민들은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그
어떤 침략자도, 자연의 횡포도,
막아서는 시련과 난관도 두렵지
않으며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것이 공화국인민들의 역척불변의
신념이다.

천하제일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공화국은 영
광과 승리만을 떨치며 억년천청
할것이다.
본사기자 손지성

